

「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조사」 결과

2020. 9.

< 요약 >

□ 주요기업 재택근무 운영 현황 실태 조사(9월 7일~8일 기준)
※ 매출('19년 기준) 상위 100대 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69개사 대상(공기업 제외)

- ① **매출 100대 기업 사무직 대부분이 재택근무 시행, 생산직은 시행 기업 없어**
 - ▶ 사무직은 응답 기업의 88.4%가 '현재 재택근무 시행 중'이었으며, 2.9%는 '곧 시행 예정(계획 확정)'인 것으로 조사됨.
 - ▶ '재택근무를 시행하지 않으며, 시행 계획도 없는 사업장'은 8.7%이나 일부 기업은 3단계 격상시 시행 검토
 - ▶ 생산직은 직무 특성상 재택근무 시행 기업이 없었으나, 방역조치 등 감염병 예방 노력 강화
- ② **주로 교대 순환 방식으로 재택근무제 운영**
 - ▶ 재택근무 운영 방식은 △교대조 편성 등의 순환 방식(44.4%), △재택근무 필요인력 선별 또는 개별 신청(27.0%), △필수 인력 제외 전근로자 재택(15.9%) 등으로 조사됨.
- ③ **재택근무 체감 업무생산성 정상근무 대비 90% 이상이라는 평가 절반 가까이**
 - ▶ 재택근무시 정상근무 대비 업무 생산성 △90% 이상 응답 46.8%, △80~89%라는 응답 25.5%, △70~79% 응답 17.0%, △70% 미만 응답 10.6%(평균 약 82.7%)

※ 해당 설문의 경우 응답자(인사담당자)의 주관적 평가를 묻는 문항으로, 정상출근 대비 생산성 비율임.

 - ▶ 재택근무제 도입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자, 소통활성화를 위한 IT 프로그램 활용 확대(77.6%), 업무 및 성과관리 시스템 강화(56.9%)* 등 다양한 보완책 시행(복수응답)
 - * (예시) 근태 및 업무진행 상황을 기록·관리하는 프로세스 도입,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 체계 강화 등
- ④ **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활용 여부, 긍정적 전망이 높아(53.2%)**
 - ▶ 코로나 위기 상황이 해소된 이후의 재택근무 활용 여부에 대해 53.2%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확산될 것으로, 33.9%는 기존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함.

⇒ 재택근무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근무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성과중심 인사관리시스템 구축과 기업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개선 필요

1 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

▶ 사무직 시행 88.4%, 생산직은 시행하지는 않지만 방역조치 등 노력

■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)가 「사회적 거리두기*에 따른 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조사」를 실시한 결과, 응답 기업의 재택근무 '시행' 비율은 88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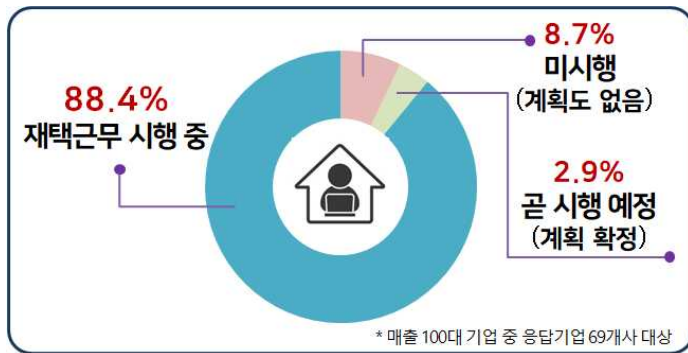
* 수도권 2.5단계,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조사(9월 7일~8일)

※ 본 조사는 국내 매출액 100대 기업(2019년 기준) 가운데 공기업 9개사를 제외한 민간기업 9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이며, 응답 기업 수는 69개사

○ 응답 기업의 88.4%가 '현재 재택근무를 시행 중'인 것으로 나타남(사무직 기준).

- 높은 재택근무 시행률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대한 주요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결과로 풀이

<그림 1> 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시행 현황



○ 조사 시점에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, '곧 시행 예정(계획 확정)'인 기업의 비중은 2.9%로, 시행 중이거나 시행 계획이 확정된 기업 비중을 합치면 91.3%에 달함.

○ 응답 기업 중 '현재 재택근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, 구체적인 시행 계획도 없는 사업장(미시행 기업)'은 8.7%(6개사)

- 재택근무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로 '업무 특성'상 쉽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으며, 사업장 시설내 밀집도 저하 조치나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재택근무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도 있었음.

- 일부 사업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 한해 재택근무를 검토할 것으로 응답

○ 한편, 사무직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이더라도 현장에 근무하는 생산직의 경우 업무 특성상 정상출근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남.

- 사무직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, 생산직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회사는 한 곳도 없었음.

※ 생산직의 경우 생산설비를 운영·관리해야 하는 직무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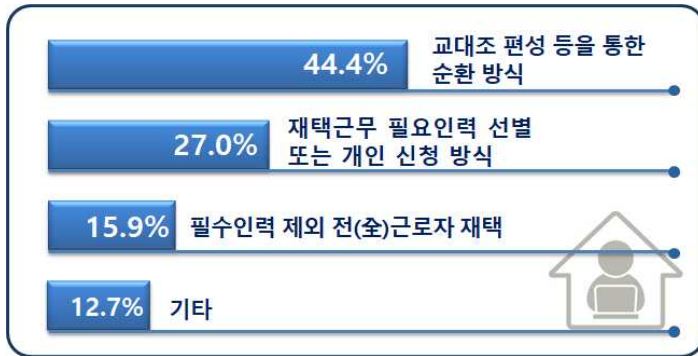
○ 다만, 재택근무 시행이 어려운 생산직에 대해 일부 기업에서는 필요시 연차 휴가 외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, 식사·휴게시간 조정, 휴게실·구내 식당·통근버스 밀집도 저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됨.

2 재택근무 방식

▶ 교대 순환형 44.4% ▶ 재택근무 필요인력 선별 또는 신청 27.0%

-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업마다 달랐으나, '교대조 편성 등을 통한 순환방식'을 가장 다수가 채택(44.4%)하고 있었음.
- 구성원을 2조 또는 3조로 나눠 교대방식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하거나, 출근자 비율을 특정(ex. 50%)하여 부서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순환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남.

<그림 2> 주요기업 재택근무 방식



- 다음으로 '재택근무 필요인력을 선별하거나 개인 신청'에 따라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 비중이 27.0%로 나타남.
- 이는 건강·돌봄·임신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거나, 개인의 신청에 따라 재택인원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았음.
- 응답기업의 15.9%는 업무 특성상 반드시 사무실 출근이 필요한 '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직원에 대해 재택근무'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최근 강화된 '수도권 거리두기 2.5단계' 조치가 전사적 재택근무 시행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음.

- 기타 응답으로 '특정요일(ex. 주 1회)만 재택근무를 시행'하거나, '부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재택근무 방식을 결정'하게 하는 등 기업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.

3 재택근무시 체감 업무생산성

- ▶ 정상근무 대비 90% 이상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
- ▶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

○ 재택근무시 근로자들의 업무 생산성에 대해 '정상근무 대비 90% 이상'의 생산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응답이 46.8%로 가장 많았음.

※ 해당 설문의 경우 응답자(인사담당자)의 주관적 평가를 묻는 문항으로, 정상출근 대비 생산성 비율임.

- 업무생산성을 '80~89%'로 응답한 비중이 25.5%, '70~79%'가 17.0%였음.
- 정상근무 대비 생산성이 70% 미만이라는 응답은 10.6%였으며, 생산성이 절반(50%)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도 일부(4.3%) 있었음.

〈표 1〉 인사담당자가 평가한 재택근무 생산성
(정상출근시 생산성 = 100, %)

구분	70% 미만			70~79%	80~89%	90% 이상	
	50% 미만	50~59%	60~69%			90~99%	100%
응답 비중 (전체 100%)	10.6			17.0	25.5	46.8	
	4.3	2.1	4.3			21.3	25.5

○ 재택근무 업무 생산성에 대한 전체 응답을 평균할 경우 정상출근 대비 약 82.7% 수준으로 나타남.

- 재택근무시 생산성에 대한 평가는 같은 사업장내에서도 직무 특성과 업무 여건, 개인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.
- ※ <예시> 단독으로 업무진행이 가능한 기획·연구 중심의 직무는 재택시 불필요한 방해요소가 줄어 업무집중도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, 대면·협업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 성과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음.

○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상근무 대비 재택근무시 생산성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재택근무에 대한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- 다만, 이는 조사대상이 규모가 매우 큰 대기업으로 IT프로그램 활용, 업무·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재택근무 생산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.

○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주요기업들은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남(복수응답).

- 재택근무 도입 기업의 77.6%가 장소적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직원간 커뮤니케이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업툴, 메신저 등의 IT프로그램 활용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.
- 또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업무 및 성과의 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스템을 더 강화한 기업도 56.9%로 나타남.

※ (예시) 근태 및 업무진행 상황을 기록·관리하는 프로세스 도입,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 강화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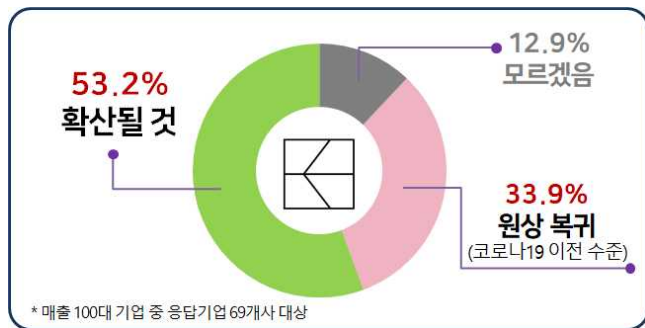
- 그 밖에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내 업무시스템 접근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거나, 노트북 컴퓨터 반출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(51.7%)한 것으로 조사됨.

4 코로나19 해소 후 재택근무 활용 여부, 긍정적 전망 높아

▶ **확산 53.2%**, **원상 복귀 33.9%**, **모르겠음 12.9%**

- 코로나 위기 상황이 해소된 이후의 재택근무 활용·확산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53.2%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재택근무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응답
- 이에 반해, 코로나 위기 상황이 해소될 경우 재택근무 활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도 33.9%로 나타남.

<그림 3> 향후 재택근무 활용 전망



- 경총은 앞서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기업들에서 도입한 다양한 생산성 유지·제고 방안을 고려할 때, 향후 재택근무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근무제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구축과 기업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개선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.
- 비대면 상황일수록 구체적인 업무의 결과 및 성과로 직원들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성과중심 인사·임금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임.
- 또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원간 소통방식을 다양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 자율과 책임·성과에 기반한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함.

----- ◇ -----

- 조사 개요 -

1. 조사목적

한국경영자총협회의 「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조사」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시행됨에 따른 주요기업의 재택근무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재택근무 운영 및 관리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분석대상

국내 매출액 100대 기업(2019년 기준) 가운데 공기업 9개사를 제외한 민간기업 9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응답 기업 69개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.

3. 조사기간 : 2020년 9월 7일 ~ 9월 8일 < 2일간 >

4. 조사방법

전화를 통한 타계식 조사방법을 이용하였음.